

시편 묵상 37  
(11/2/2023, 목)

찬양: 413(470)(내 평생에 가는 길)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27:1-3

**말씀에 대한 이해:** 시 27 편은 다윗의 시로서 ‘비탄시’로 분류된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보여준다. 다윗이 시 27 편을 지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어쨌든 본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특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담으며 우리 자신에게 큰 도전을 준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함을 경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다윗의 표현처럼 마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마치 수백 수천 명의 적군들이 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둘러 진치고 나를 덮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서 신앙으로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보자.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다윗. 시 27:1-3 - 1.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묘사하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라고 말했다. “먹으려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에콜’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며 멸망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윗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대적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

다윗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했다. “태연하리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안전함을 믿다’, ‘확신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다윗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안전함을 확신했다. 안전함의 확신으로 다윗의 마음에 평정심이 자리하고 안정감이 깃들었을 것이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태연함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힘들어 할 것을 이미 아시고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 평안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이다. 요 14:27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평안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수많은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평안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면의 평정과 고요함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요 16:33 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셨다.

지금 이 세상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국가 사회적인 문제,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전쟁, 테러,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의 평정과 고요를 앗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평정과 고요를 잃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작은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불안 속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다윗은 전쟁이 없어서 자신이 태연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고 말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담력, 그리고 내면의 평정과 고요는 성도들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가졌던 태연함, 내면의 평정심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렇다면 다윗이 대적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연함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의 태연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1 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시 27:1 -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다. **“빛”**은 생명 혹은 기쁨을 상징한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어둠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 어둠을 걷어가는 빛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고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빛 자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그 자체이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였다. 그래서 **“여호와와 . . .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구원 자체라고 믿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고백했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즈’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힘있다’, ‘강하다’, ‘견고하다’이다. 이 단어는 힘과 능력의 의미와 함께 ‘산성’ 혹은 ‘피난처’의 뜻도 가진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자신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며 노래할 수 있었다.

지금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지금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다윗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빛이시며,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자.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마음에 평정심과 고요함을 누리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영무(남아공화국), 박재덕(탄자니아), 박종국(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 9월 21일 유엔 총회 직전에 있었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45억 명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한 국가들이 결핵 예방을 하지 못하여 2021년에도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직결된 의료적 치료가 긴급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며,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